

사례6. 고충증(sparganosis) 증례 연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7명은 홍길동을 책임저자로 고충증(sparganosis) 증례를 대학학술지에 국문으로 게재하였다. 같은 종합병원 같은 과의 5명은 역시 홍길동을 책임저자로 하여 같은 증례를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게재하였다.

구성 요소별 판정

항목	내용	판정
저자와 소속	첫 논문 7인 두 번째 논문 5인 중 5인이 동일, 소속은 모두 같으며 제1저자, 책임저자 모두 동일(두 번째 논문에서 저자 2명 제외)	1인 이상 저자 공유함
가설	동일 증례 보고	동일
대상		
연구방법		
결과	결과 내용 동일	동일
새 정보	두 번째 논문에서 추가 정보 없음	없음

추가 사항

항목	내용
발표 학술지 관련	처음 논문은 2003년도에 대학학술지에 국문으로 게재하고 다시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에 국내학술지에 국문논문 게재. 두 번째 논문에서 처음 논문 인용 없음
영문초록, 본문	기술 모두 동일
표	표 1개 동일
그림	그림 3개 모두 동일
참고문헌	9개와 10개로 한 개 차이 있으며 9개는 동일
연구비 기술	없음

해설

항목	내용
중복출판	저자 2명이 제외되었지만 동일한 연구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증례보고 대학학술지가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아서 검색하지 못한다고 여겨서 학술지에 중복출판한 것으로 추정 • 유형: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제
다른 윤리문제	• 저자됨: 두 번째 논문에서 2인 삭제하여 유명저자 의심